Ⅴ. 요약 및 결론

1. 결론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초월로그비용함수로 계약인수모델과 급부지급모델을 만들어 각 국가별로 추정하고 층화프론티어 방법으로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의 비용 비효율성 정도를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은 규모에 비해 비용 비효율성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캐나다 및 기타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한국 생명보험산업의 비용 비효율성 정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비용프론티어가 최적인 회사의 효율성 정도는 유럽 국가의 중간수준 정도에 불과하였다.

둘째, 추정 비용의 차이 중 보험시장 및 규제환경 측면에서 한국과 차이가 크게 나는 국가는 일본 과 유럽 국가이었고 비용 비효율성 측면에서 차이가 큰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및 기타 국가와 비교하여서는 감독·규제의 차이가 그리고 일본과 비교할 경우에는 자본 및 금융시장의 불안전성이 한국과 보험환경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보험환경 차이보다는 한국 보험회사의 상대적 비효율성으로 인해 두 국가의 추정비용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규모와 추정비용 또는 비용 비효율성의 관계를 보면 두 모델 모두 기존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회사의 비용 비효율성이 소규모 회사보다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단, 일본의 신설사가 포함된 계약인수모델의 경우 소규모 회사의 비용 비효율성이 대규모 회사보다 낮게 나타나 일본 신설사의 비용 효율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두 모델 모두 한국과 일본(신설사를 생략한 경우)의 생산구조 또는 생산기술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기타 국가에서도 기술의 유사성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도 계약인수모델에서 두 국가간 추정 모수의 안정성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표본 전체 국가와 개별 국가의 생산구조 또는 생산기술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국가간 효율성 비교 연구가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보험자의 위험 인수 및 결합 서비스에 대한 측정치를 다르게 한 두 모델의 추정 모수가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목적함수 값의 비교 또는 두 모델간 안정성 테스트로 검증할 수 있다. 검증 결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추정 모수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급부지급모델에서 신설사를 제외시킴으로 인해 두 모델간 추정 모수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급부지급모델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약인수모델에서도 일본 신설사를 제외시켜 두 모델을 비교해보면 모수 추정치간 안정성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모든 표본 국가에서 위험 인수 및 결합 서비스를 보험료로 측정하는 경우와 지급 급부로 측정하는 경우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는 기존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하겠다.

여섯째,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의 효율성을 FY'95부터 FY'99까지 분석해보면 IMF 경제 위기로 인해 FY'97의 추정비용이 두 모델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당시 생산성 저하와 유동성 위기에 따른 자본비용 증가로 효율성이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FY'99에서는 구조조정과 신계약비 이전제도의 도입에 의해 FY'95의 효율성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의 효율성을 보면 두 모델 모두 기존사의 추정비용이 가장 낮으며 외국사의 추정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사와 외국사의 상품 포트폴리오 및 판매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아진다. 즉, 외국사는 기존사에 비해 사업비율이 높은 보장성 상품에 주력하고 있으며 높은 수당을 지급하는 전문 설계사에 의한 판매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추정비용이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대부분의 실증분석 연구가 데이터 측면의 제한성을 가지듯이 본 연구도 마찬가지로 모델에서 사용된 데이터에 한계가 있다. 첫째, 총비용 중 사업비를 구성하는 요인별로 가격을 정확하게 분리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사업비는 종업원 임금, 중개인 수당 및 기타 제비용으로 이루어지는데 각 투입요소에 대한 가격을 각각 측정하지 못했고 OECD 국가간 비교물가를 대리치로 사용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자본요소에 대한 가격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자본은 계약자자본, 자기자본(equity capital) 그리고 컴퓨터, 기기 등의 물리적 자본(physical capital)으로 구성된다. 특히, 자기자본은 보험회사가 기대손실 이상의 손실을 실현한 경우에도 계약자에게 약정 급부를 지급하는 역할을 하므로 생산과정에서 중요한 투입요소가 된다. 하지만 본 모델에서는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가 상장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자기자본 가격의 측정이 어려워 계약자자본에 대한 요소가격만이 사용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본 모델의 표본 국가가 주요 OECD 회원국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전체 회원국 각각의 효율성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특히, 한국보다 규모면에서는 작지만 높은 효율성이 있을 수 있는 국가를 많이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또한 기타에 포함된 국가들의 경우 각 국가별로 추정함이 적정하나 표본 수의 한계로 하나로 묶어서 회귀계수를 추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과제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요망된다. 첫째, 보험회사는 효율성 그 자체보다는 효율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업 내부 요인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한국과 미국 및 캐나다의 추정비용 차이는 대부분 한국 보험회사의 비효율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야기시키는 원인을 언더라

이팅 부문과 투자 부문으로 나누고 또한 각 부문에서 비용 비효율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업의 전략요소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면 보험회사의 효율성을 위한 전략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추정비용의 차이 중 환경요인에 의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감독체계 및 시장환경을 계량화 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감독시스템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유럽국가에 비해 추정비용이 높은 이유가 규제 환경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간주하였으나 이에 대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감독당국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 결과로 규제완화가 보험산업의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감독당국에 시사점으로 제시할 수 있다. 미국 및 캐나다와 유럽국가의 추정비용을 비교해보면 유럽국가의 추정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표 IV-6>과 <표 Ⅳ-11>에 의하면 유럽과 북아메리카 보험환경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험환경 차이 중 두 시장이 자본 및 금융시장 측면에서 동일 수준의 경쟁 정도를 가진다고 가정한다면 그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제·감독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 보험산업에서의 규제완화는 보험산업의 비용감소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생명보험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였는데 손해보험의 경우도 동일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국내 손해보험산업의 효율성을 OECD 국가와 비교분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손해보험산업에서는 발생손해액을 계량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 급부보다는 이를 급부지급모델의 산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